

특색 있는 동네 이야기, 그 두 번째 서래마을

프랑스적인 삶을 꿈꾸는 마을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 매일 아침 고소한 바게트 빵 굽는 냄새와 와인향이 집집마다 풍겨나온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는 집 앞 레스토랑에서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간단히 와인 한잔을 즐기며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낭만과 여유가 묻어나는 삶. 이곳 서래마을의 일상이다. 에디터 이은숙 사진 이충규





서래마을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운치가 느껴지는 동네다. 마을에 준비하게 들어선 레스토랑과 와인 바 역시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조용하게 외식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반포4동과 방배본동 경계에 위치한 서래마을. '서래마을'이란 마을 앞 개울물이 서리서리 굽이쳐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800여 명의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한국의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이수교 방향으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육교, 그 아래 왼쪽에는 '서래로'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가 서래마을의 입구다.

서울에서 프랑스를 만나다 서래마을에는 국내 거주 프랑스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800명가량의 프랑스인이 살고 있다. 1985년 한남동에 위치해 있던 프랑스 외국인학교가 이곳 반포4동으로 옮겨오면서 프랑스인들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 여기에 10여 년 전 메제베와 까르푸, 르노삼성 등 프랑스 한국지사가 속속 들어서면서 더 많은 프랑스인이 이곳에 등지를 틀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숫자의 프랑스인이 모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래마을의 모습은 유별나지 않다.

현재 서래마을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상권을 찾아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차분하고 조용한 주거공간을 이루며 살아간다. 각각각층의 한국 사람들과 프랑스인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조용히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정취를 느끼고자 서래마을을 찾는 이들은 서래마을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분명 다른 마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서래마을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칠 법한 안내판이

나 이정표에는 한글과 프랑스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 프랑스를 떠올리게 하는 골목 이름이나 가게의 간판 등이 그것이다.

마을 입구 이정표에 적혀 있는 '서래로'는 서래마을의 메인 스트리트다. 서래골공원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을 사람들은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부른다. 이 언덕을 걷다 보면 프랑스 국기를 형상화한 파랑·하양·빨강의 '삼색' 보도블록을 만날 수 있다. 서래로 중간에는 프랑스 외국인학교가 있고 학교 맞은편 골목에는 은행나무 공원과 청롱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정겨운 이곳은 여느 동네 놀이터와 다를 바 없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가족공원과 같은 곳이다.

서래마을에서 즐기는 이색 공간 서래마을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운치가 느껴지는 동네다. 마을에 준비하게 들어선 레스토랑과 와인 바 역시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조용하게 외식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가장 트렌디하다는 청담동 레스토랑은 화려한 인테리어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서래마을에서는 음식의 맛과 와인의 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서래마을을 찾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래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마다 들어선 빵집, 카페, 와인 숍, 레스토랑들에는 프랑스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는 파리크라상. 이곳의 손님 중 절반은 외국인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프랑스 현지의 바게트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프랑스인 파티시에가 직접 빵을 구워내기 때문.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은 당연히 바게트와 크루아상. 프랑스인들이 바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게트가 포도주 맛을 돋우기 때문이다. 바게트 이외에도 버터나 마가린을 넣어 만든 반달 모양의 크루아상은 프랑스인들이 아침식사로 즐겨 먹는 빵이다.

베이커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 프랑스인 한 명이 연간 소비하는 와인과 치즈의 양은 각각 58리터와 17kg 정도라고 한다. 와인과 치즈에 열광하는 프랑스인들의 보급자리답게 서래마을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음식과 와인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와인 바가 즐비하다. 서래로에서 한 블록 더 들어가면 골목마다 와인 바들이 속속 눈에 띈다.

한편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 하나가 바로 미술이다. 실제로 몽마르뜨 언덕은 고호나 드가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몽마르뜨'라고 불리는 서래마을에는 지난 1년 새 카페와 레스토랑이 17개나 새로 생겼으나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그나마 지난 12월에 개관한 '갤러리 루브'가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덜어주고 있다. 갤러리 루브에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래마을 물들이기>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서래마을 물들이기 기획전이 끝나는 5월에는 '겨울전'과 '파티션' 등 리빙과 관련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이곳에는 유럽풍의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 바가 하나 둘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마을 주민은 서래마을을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들의 무신경함이 독특한 서래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마을의 정체성과 특성을 재조명하는 <서래마을 물들이기>와 같은 작가의 작

업은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다. 여기에 마을 주민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서래마을은 지금보다 더 독특하고 특색 있는 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래마을의 '명동', 파리크라상 부근 권리금은 1억 원 이상 서래마을의 중심 거리인 '서래로'. 서래로의 중심은 바로 파리크라상 베이커리점이 있는 자리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서래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는 파리크라상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곳. 그 때문일까. 파리크라상 주변은 서래마을의 '명동' 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평당 지가가 높고 상가 권리금도 높게 형성돼 있다. 현재 파리크라상 주변 평당 지가는 3000만 원 정도. 와인 바의 경우 1층 상가 매매가는 3000만~6000만 원이며 인기 있는 상가의 매매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 서래로 주변 가게의 권리금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700만~80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외국인들 겨냥한 고급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파리크라상 근처 등 목 좋은 곳을 중심으로 권리금이 1억 이상 붙기 시작한 것. 이곳 서래로 주변 권리금이 평균 3000만~40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파리크라상 주변 권리금은 서래로 주변 상가에 비해 현저히 높다.

서래마을 주변 중개업자들은 "파리크라상 주변은 물론 서래로 한 블록 뒤에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등 상가 문의가 수시로 들어온다. 하지만 장사가 잘돼 가게를 내놓으려는 사람이 없어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서래마을의 중심이 되는 서래로에서 한 블록 안쪽에 위치한 아르떼. 이곳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해 만든 이탈리아 레스토랑 겸 와인 바로 최근 서래마을 레스토랑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이곳 단독주택에 살던 소유자가 프랑스 외국인학교 맞은편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지금의 아르떼가 장기 임대 형식으로 이곳에 들어서게 된 것.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르떼'는 오픈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교대 근처에 거주하는 손님들까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음식 맛이 일품이다. 아르떼 대표는 "현재 청담동은 레스토랑이 과포화 상태라 강남 인근에서 외식 사업의 전망이 있는 곳을 찾다가 서래마을을 택하게 됐다"고 말한다. 아르떼는 이 일대 다른 가게들보다 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는 곳으로 고급 빌라 5000세대가 밀집돼 있는 부촌에 자리하고 있어 음식 맛과 가격 수준이 높다.

서래마을 레스토랑이나 와인 바의 주 고객은 서래로 양쪽으로 밀집된 고급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다. 5년 전만 해도 정·계계 유명 인사 등 상류층이 모여 사는 부촌으로 알려진 이곳에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가 많았다. 당시 100평 규모의 빌라 매매가는 10억~15억 원 정도였다. 하지만 아파트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형 평수 아파트가 등장하자 이곳 고급 빌라의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빌라의 시세 상승은 약하기 때문. 현재 강남 34평 재건축 아파트 시세와 서래마을 100평 빌라의 시세가 비슷한 수준인 점만 봐도 최근 빌라에 대한 인기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의 저층 고급 주거지를 선호하는 이들은 꾸준히 빌라를 고집한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2000년 5월 6억 원에 분양됐던 반포동 서래마을 상지리츠빌 80평 빌라는 최근 9억 4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이 없는 서래마을의 이국적인 정취를 찾아 산책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서래마을은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맞아줄 것이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한가한 오후, 특별한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둘러보자. 돌아오는 길에는 분명 여유로움과 아늑함이 가득할 것이다. ☺



2006 한국화 열혈 작가 프로젝트
서래마을 물들이기 展 (3월 17~4월 6일).
1 고경희의 Paris, France, 2 전나영의 어느오후.